

□우리동네같은 유럽을 다녀와서

각 도시가 서로를

이해하는 열쇠



김 포공항에 7월 14일 도착했을 때는 예정보다 한시간 정도 이른 시간이었다.

한 사람씩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약속시간인 11시를 30분쯤 초과했을 때에야 비로소 연수단원 22명이 모두 모이게 되었다. 낯선 곳으로 떠나기 위해 우리는 스위스에 어라인 177기에 탑승을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본 비행기에서 난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다.

스위스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저녁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버스과 전철을 타고 Bahnhof Strassen에 도착하여 편리한 관광을 시작했다. 우리동네 중앙천을 갈가꾸어 놓으면 비슷할 것만 같은 강변을 따라 걸으며 이국의 정취에 흠뻑 젖을 수 있었다.

스위스에서 놀았던 것은 담배꽂이를 도로변에 버린다는 사실이었다. 하수 시설을 잘 해놓아 담배꽂이를 도로변에 버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접하며 우리나라의 모습을 어떠한가를 생각했다.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임시방편이 많은 우리나라의 행정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까 싶었다.

짧지만 했던 스위스에서의 시간을 뒤로 하고 우리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향해 떠났다. 도착해서 바로 에펠탑을 관광하려 했다. 불빛 찬란한 에펠탑의 야경은 우리모두의 혼을 앗아가기에 충분했다.

다음날 전철을 타고 라데팡스는 신도시에 도착했다. 구 파리 시내와는 다르게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도시에서 저 멀리 개신교가 보이자 마음이 들떴다. 개신교까지 도시를 둘러보며 걸어가기로 했다. 개신교를 돌아본 후 영화로 유명한 몽테니의 다리에서 사진도 찍고 세느 강변을 따라 죽 늘어선 벚꽃에서 자갈찬 기념품들도 사면서 거리를 활보했다.



▲총학생회 간부와 대학원 선발전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지난 7월 자매결연학교인 벨기에 루벤대학을 방문했다

7월 17일 우리는 노틀담 성당으로 향했다. 노틀담 성당 앞에 있는 영점표식을 보며 자존심 강한 프랑스인들의 모습을 역추적해 볼 수 있었다. 성당안에 미어터질 듯이 밀려드는 사람들을 보며 노틀담 성당의 유명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날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아침에 기상해서 맑스와 엔젤스가 다정한 모습으로 조각된 동상이 있는 알렉산더 광장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루터를 기리는 루터파교회로 갔다. 유럽은 어디를 가든 그 도시를 이해하는 열쇠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서 구경을 하고 오전 11시경이 되어 체코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 여행지가 될 체코는 한국인이 가장 다시 가고 싶은 나라중의 하나에 속한다고 할 정도로 아름답고 한국인의 정서에 밀착되는 곳이었다. 7월 21일 오전부터 시작된 관광에서 우리는 제일 처음 프라하성을 들르게 되었다. 비오는 프라하성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곳을 한바퀴돌고 난 후, 필름 한 통을 써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깨달았다. 성 니콜라스 성당에도 들어가 보고, 황금소로를 걸어도 보고 14세기경에 만들어진 천문시계를 구경하기도 했다.

수많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7월 22일 아침 공항으로 이동했다. 프라하에서 편리하게 거쳐 다시 김포공항에 무사히 도착한 시간은 23일 아침 9시. 일상에 다시 오지 않을 즐거웠던 9박10일간의 해외연수. 더욱 많은 인원의 참가가, 더욱 많은 준비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와 다시 해보게 된다.

오태호<국문 석사3기>

□허망한 환상의 나라, 미국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미국문화연수단을 조직하여 미국의 각 대학을 방문하였다. UCLA 앞에서 총학생회와 함께(왼쪽) UCLA 전경(오른쪽 위) 스탠포드대학 도서관(오른쪽 아래)

노력과 잔인함이 일군 나라

7월

21일 오후 6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가 김포공항의 활주로에서 바퀴를 뒤흔들었다. 우리는 그저 설레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땅. 잘 알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갖고있는 환상과 그 환상 속의 땅을 심어 시간만 지나면 밭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흰 구름사이로 띄엄띄엄 자리한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얼마 안되어 우리는 우리의 첫 목적지인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의 첫발을 내디뎠다.

샌프란시스코. 지금도 누군가가 나에게 미국 여행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을 꼽으라면 난 서슴없이 '샌프란시스코'를 말한다. 아기자기한 집들과 꿈속같이 꾸민 안개 속에선 과거 미국이 자신들의 식민지이자 멕시코의 땅이었던 캘리포니아주를 1천 5백불이라는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땅으로 굳히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 곳, 샌프란시스코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추측이 들 정도였다.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반팔이 무색하리만큼 찬바람이 인상적인 금문교와 어부의 선창가 또한 샌프란시스코가 주는 감동이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인 산호세의 실리콘벨리는 미국경제를 조금은 알게해 준 곳. 8천여개 회사의 연구소가 자리한 그 곳에 의해 미국경제의 20%가 좌지우지한다 하니 실리콘벨리의 위상은 가히 알만한 것이었다.

다음 우리가 찾은 곳은 워싱턴 주의 시애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이곳에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이란 진동하는 시간 관계상 보지 못했지만 이른 아침 찾아간 거버먼트 락에서 나는 미국인의 발달을 향한 집념과 동시에 집념 뒤에 가려진 잔인함을 보았다.

거버먼트 락은 수면의 높이가 서로 다른 곳에 수문을 설치함으로써 낙차를 해소하고 배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곳이었지만 이곳은 안타깝게도 산란기를 맞이하는 연어들이 고향천으로 돌아가는 통로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발달한 아니라 자연의 보호를 추구한다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1미터 남짓한 통로. 관광용으로 설치해 둔 유리벽을 통해 그 좁은 틈만큼 높은 수압을 거스르기 위해

애쓰는 연어의 눈빛을 보면서 생각한 단어가 '잔인함' 밖에 없었다면 설명이 될까.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미국인들을 경외시키기에 그들의 능력은 인정해도 좋을 것이었다. 콘크리트 댐임에도 불구하고 1백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다는 후버댐에서, 한때 행한 사막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호텔들과 카지노가 화려하게 자리한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로변으로만 알던 어디든 찾아갈 수 있게끔 계획한 도로망에서 그들은 그들이 없기에 해낼 수 있었던 갖가지 성과들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타고난 운도 아주 무시할 것은 아니었다. 땅이 넓으니 자원이 많은 것도 당연하겠지만 콜로라도 강이 지나가며 끌고 간 흙과 돌로 만들어졌다는 그랜드캐년의 그 절경은 '행운'이라는 말로 밖에 설명이 되질 않았다. 하지만 그 자연의 절경과 그 속의 자연인도 미국인에게만은 그대로 둘 수만은 없는 이용 대상이었다. 아이맥스관에에서는 그랜드캐년의 인디언 역사에 대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인디언들은 현재 미국인들의 '인디언 말살정책'으로 언제 사라질 지 모르는 위기에 있었다. 기념품 판매소의 가장 많은 공간을 인디언 인형으로 채우고 있는 그들이 바로 다른 한 곳에서는 인디언 말살정책을 부르짖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양면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보면 미국은 그들의 노력과 잔인함이 일군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UCLA에 갔을 때 그곳에 교환교수로 나가있던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배울 점보다 배워야 할 점이 더 많은 나라라고. 양면성과 폭력문화가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기 이전에 자신들을 지켜가면서 세계화에 성공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정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들의 잔인함이 아무리 밟고 또 밟아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10%가 넘는 한 대학의 도서관에 우리나라 서적이 고작 2개의 책꽂이를 메우고 있음을 보면서 느꼈던 조라함보다는 강한 울분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므로...

<강남이 기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첨단과 신사가

공존하는 나라

간

사이 국제공항에 8월 4일 도착했다. 일본 제 일이라는 그곳의 규모와 현대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미래식) 시설에 압도당했다. 동아시아의 중심공항을 목표로 바다를 메우는 등 막대한 돈과 노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용요금도 세계에서 제일 비싸지만 아직도 적자라고 한다.

오사카 시내를 통과하는 도중 빌딩 창문에 빨간 ▲표가 붙어있었다. 화재나 지진 등의 비상시에 그곳을 통해 탈출할 수 있다는 표시라고 한다. 새삼 일본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늑한 아늑한 가람 지진을 느낄 수 있었다.

오사카성에서 도쿄미하메요시를 신으로 삼은 신사와 천수각을 봤다. 다른 곳에선 찾아보기 힘들던 쓰레기가 이곳에선 자꾸 눈에 띄었다.

8월 5일 우리는 교토로 이동해 우리학교와 자매교인 리츠메이칸(입명관)대학을 방문했다.

이 대학의 1백주년 기념사업인 아시아태평양대학의 홍보비디오를 보고 학우회(=학생회)대표 3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일본에선 입학성적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학생에게 좋지 않는 차별을 막기 위해서란다. 또한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전국에 2~30개밖에 없고 이 학교에도 올해 처음으로 한국어 과목이 생겼다고 한다.

8월 6일 아침에 TV를 켜니 꿈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부끄러웠다. 나라로 이동해 법률사를 탐방했다. 건물 배치와 배제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불상들이 동대사의 불상들과 달리 우리불상과 닮았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문화의 전래를 증거할 고분은 발굴하지 않는다고 하니 일본의 이중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기대했던 금당 벽화는 49년에 소실되어 일본 화공이 덧칠을 해놓은 터라 팔팔 땀에 남은 사진으로 만족해야 했다. 동대사에 들어서니 일본 투구 모양의 대불전이 나타났다. 세계 최대의 목조 건축물이라는 본당은 보는 사람을 압도했다. 그 안의 대불은 또 어찌나 크던지! 교토로 이동 동경행 시간선을 탔다. 빠르게도 조용한게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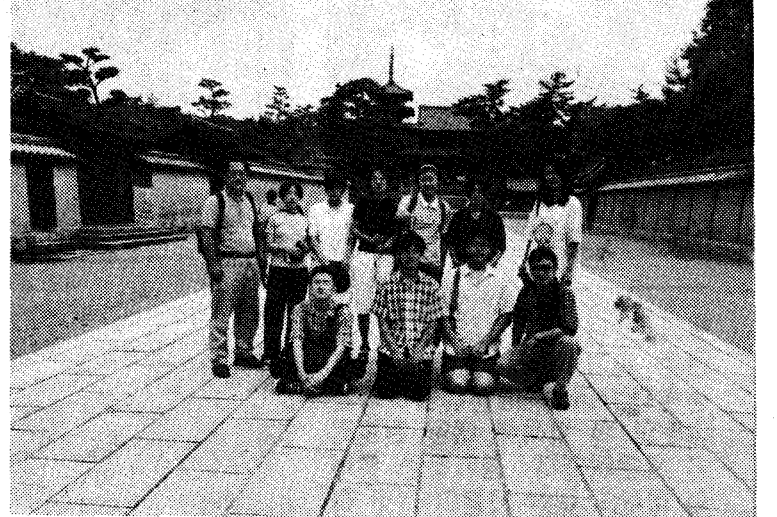
8월 7일 자매교인 일본대학을 방문했다. 동경 시내에 건물이 달랑 하나 있어서 놀랐으니 알고보니 그곳은 일본대학화관이라는 본부였고 실제로는 14개 학부에 학생수만 8만8천여명인 일본에서 제일 큰 학교라고 했다. 통신교육부장인 가토 교수가 '아시아속의 한국과 일본'이란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 자신의 말대로 솔직하게 자기 속마음을 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8월 8일 TV에서 태풍이 동해로 올라온다는 뉴스를 봤다. 아늑한 아니라 날도 꾸물꾸물한게 한바탕 쏟아질 것 같았다. 내일 날씨가 나쁘면 아무리 용감한 대한항공이라도 뜰 수 없는 것이었다.

8월 9일 다행히 날씨가 풀려 우리는 나라타공항으로 갔다. 까다롭던 입국 수속과는 달리 출국 수속은 아주 간단했다. 외국인 창구가 붙어있는 간사이 공항과는 달리 김포에선 내국인 창구가 붙어있던 느낌을 받았다.

돌아온 뒤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뉴스를 봤다. 아늑한 아니라 날도 꾸물꾸물한게 한바탕 쏟아질 것 같았다. 내일 날씨가 나쁘면 아무리 용감한 대한항공이라도 뜰 수 없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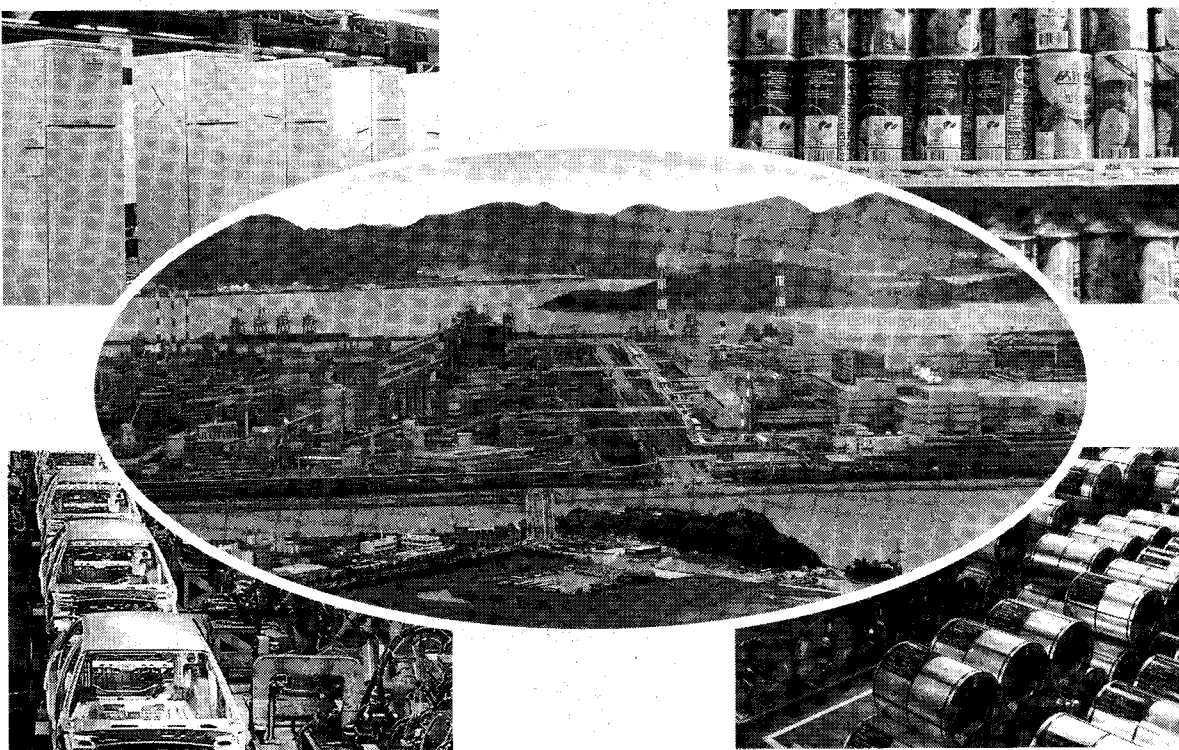
유진영<한1>



▲97학년도 우수 신입생을 선정하여 하계방학동안 일본연수를 실시하였다

초일류 철강기업의 초일류 철강시설!

“광양 4냉연공장 준공!”



100% 고객만족을 위한 또 하나의 실천입니다!

연간 18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최신 냉연공장을 준공한 포항제철! 자동차·고장력강 등 품질 요구조건이 엄격한 냉연제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자동차, 가전 등 국내 냉연제품의 수요에 안정된 공급을 실현했습니다. 가늘고 얇은 박판에서 두껍고 넓은 강판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원하는 어떤 사양의 제품도 완벽하게 생산, 공급해드립니다.



세계 제일의 철강기업

포 항 제 철